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본문 | 에베소서 3:14-19

간략
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비록 만날 수 없지만 온 맘 다해 에베소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준비 바른 자세로 앉아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사도신경

- 천천히 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 고백해요 -



신나는 찬양시간 기대

- 유튜브 검색어 : 기대 -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들여다보기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모임은 조심하고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달 정도 교회를 가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교회를 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괴롭혔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남은 인생을 모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으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고 섬기며 교회 세우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시간에는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며 소식을 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사람들이 올바르게 자라가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교회와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발견할 수 있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마치 나무가 땅속으로 깊이 뿌리내리듯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기도했어요.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도 기쁨이었고 에베소 교회와 공동체에는 사랑과 위로가 됐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떠올려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기

우리나라에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교회를 향한 사랑은 한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및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됐을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주안예교회를 생각하며 (주일학교 자녀들은 각 부서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모든 나눔이 끝나면,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쳐주세요.

“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기쁨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